

물가 인상...나들이·외식 두려운 '잔혹한 5월'

지출 많은 가정의 달 앞두고 기름값 고공행진 서민들 '울상' 소주값 인상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값도 급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족과의 나들이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기름값이 오르는 데다, 서민들의 대표적 먹거리인 삼겹살과 소주 역시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름이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가인상까지 겹쳐 '잔혹한 5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들이도 두렵다-기름값 고공세=28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l당 1438.88원으로 지난해 12월 10일 1439.49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16일 1327.78원을 바닥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1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용 경우도 1316.80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유가 상승세는 나들이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 5월에 접어들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5월 6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가 예고된 와중에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이 겹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은 휘발유가 l당 65원, 경유 l당 46원, LPG 부탄 l당 16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65원을 더하면 평균 1500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기름세를 보이는 국제유가가 더해지면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중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제유가는 2~3주 후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외식도 두렵다-삼겹살·소주 값 인상=기름값 상승에 이어 서민들의 대표적 먹거리인 삼겹살과 소주 값도 들쭉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 종합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평균 돈육 대표 가격은 kg당 4571원으로 3월 평균가인 3906원보다 17%가량 올랐다. 2월 평균가인 3368원보다 36%나 급등했다.

나들이철 야외 식자재로 인기가 많은 삼겹살 가격도 이달 들어 크게 올랐다. 지난 3월 kg당 1만6901원이던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4월 현재 1만8546원으로 10% 가까이 뛰었다.

특히,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5월 들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 자체 생산이 급감하면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물량 부족 현상이 발

생, 전 세계적인 돼지고기 시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내 유통업체의 경우 아직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가 남아 있지만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15~30일 뒤에는 돼지고기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맥주에 이어 서민 술인 소주의 가격도 5월부터 오른다.

하이트진로는 다음달 1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ml)의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6.45%) 올린다.

소주 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의 가격 인상에 따라 다른 주류회사도 잇달아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할 수도 있다.

소주 출고가가 65.5원 오르면 대형마트 등에서는 소매가를 100원 안팎 인상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 식당과 주점 등에서도 가격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출이 늘어나는 5월 서민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영업점 온라인 창구 직원 채용

다음달 3일까지 접수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다음달 3일까지 영업점 온라인 창구(텔레업) 지원을 수행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에 성별, 나이,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금융권 근무경력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일 근무시간 6시간(실근무시간 기준) 이내로 월 최대 9일까지 근무하며, 무엇보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결과와 출산,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의 경우도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무가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특정일이나 고객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창구업무 지원인력을 배

치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용지원을 작성해 이메일(for21c@kjbk.com)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k.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조계준 인사지원부장은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우리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구업무 지원인력을 확대한다"며 "역량 있는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여수 '화양~적금 도로건설' 익산청, 외국인 근로자 교육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은 최근 여수 소재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락과, 충돌, 협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펼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나라 언어로 작성된 교재와 통역이 제공됐다.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수와 비율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22만6391명, 전체의 19.5%를 차지하는 등 이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오는 9월까지 도로와 아파트, 철도 등 호남지역 건설현장에서 6차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철홍 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다"며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세관 직원들이 무안공항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세관 무안공항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단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5월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면세범위(미화600\$)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단

속과 함께 최근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유입 차단에 나선다.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율을 높이고, 미신고 고가품은 본세는 물론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또 중국, 베트남, 몽골과 같은 ASF발병국가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소시지, 햄 등 축산품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한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동안 성실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캠페인도 실시한다. 광주세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여행자 면세한도 퀴즈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공항 출국대합실에서 대기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반입제한품목을 안내하는 현장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김광호광주본부세관장은 "이 지역은 농도(農道)이니 만큼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량의 축산품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롯데이몰렛 수원점 호수공원에서 열린 제40회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호남권역 참가 어린이와 가족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8일 '미세먼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제40회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했다.

롯데 어린이 미술대회는 롯데백화점 창사 이후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호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만 4세이상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참가하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부'와 4학년이상 6학년 이하만 참여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로 나뉜다.

이날 대회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이수 동화작가와 협업해 만든 돗자리와 독일 필기구 브랜드 '파버카스텔'의 미니 색연필 12색 등을 증정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미술협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올해 미술대회는 대상

2명에게 국회의장상·환경부장관상 및 장학금 300만원의 상금을 포함, 지난해보다 2000여명 늘어난 4000명에게 56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85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24	40	41	43	44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977,927,550				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 일치	62,546,031				53
3	5개 숫자 일치	1,700,842				1,949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4,537
5	3개 숫자 일치	5,000				1,700,369

광한루 600년 **광한춘몽 廣寒春夢 사랑에 빠지다**

봄날, 꿈같은 축제에서 연인, 가족과 사랑을 나누다.

제89회 춘향제

2019. 5.8 수 ▶ 5.12 일
광한루원, 요천일원

주요행사

- 춘향선발대회 5.8
- 개막 공연 5.9
- 춘향국악대전 5.10~12
- 춘향길놀이 5.11~12
- 방자춤판 5.10~11
-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시민화합한마당
5.12(일) 저녁 8시

청하	장운정	엔플라잉
김연자	김혜연	오로라
조은성	진해성	태하
카밀라	현진영	성진우

주최 남원시

주관 제89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유산위원회

전라북도

국립민속국악원

제89회 춘향제